

존경하는 단국대학교 교수님귀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2016년 교수님들의 연구실에서 15기 교수협의회 회장 당선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2년이 지난 오늘 역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임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글로써 인사드림에 널리 해량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기 교수협회의 지난 2년간 활동을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 처음 접했던 요지경의 신세계 안에서 호기심 및 두려움으로 숨죽이며, 한 컷 한 컷... 바라본 희귀사진 영상들과 같이 제 뇌리 속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순간마다 만감이 교차됩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섬김’ ‘소통’ ‘참여’를 모토로 학내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세 가지 실천 가치를 대학의 비전 그리고 행정 및 정책에 뿌리내리고자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새로운 선순환적인 의사결정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서 있으며,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숙한 대학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과 같이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만 잘 놓아가면 모든 교학(정책)행정의 말단단위까지 착근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거버넌스로서 발전한다면 우리대학이 대한민국 대학의 표상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고등교육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학 정책 및 행정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이사장님, 총장님과 본부 및 부속 보직 담당 교수님 및 직원선생님들께서 비판적 조력자인 교협과 부단히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주시고 지난한 의사결정과정 속에서도 충실히 존중해주시고 진정성 있게 임해주신 것에 대해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글로써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직원노동조합 위원장님,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2019년은 교수협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 ‘섬김’ ‘소통’ ‘참여’의 기치 하에 교수님들의 권익 및 교권확립을 통한 대학발전을 이루기 위해 3월 1일 출범하는 16기 교협 김선욱 회장님, 임원진 및 운영위원님들께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충심으로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의 교협회장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5기 교수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단국대 모든 교수님들과 가정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이은재 (무역학과)